

## IV. 프랑스

□ FY 2008: 2008. 1 ~ 2008. 12

□ 출처 :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08

Les Chiffres clés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PRÉSENTATION GÉNÉRALE

Rapport sur la depense publique et son evolution

□ 환율 : 1 EUR = 1272.72원 (2007년도 평균)

### <요 약>

- ◇ 2008년 프랑스 경기는 세계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와 내수호조를 전망으로 2007년에 이어 2.0 ~ 2.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 부채상환과 정부지출통제를 통해 재정건전성강화 정책을 추진
  - 2007년까지 “정부부채의 유지 및 안정화”가 목표였던 반면, 2008년은 본격적으로 “부채감소”를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
  - 지출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Zéro volume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지출통제)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율 이상의 지출 증가를 엄격하게 관리
- ◇ 2008년 예산안은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안인 2007년 8월 일자리, 고용 및 구매력 증진을 위한 법률의 실현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정부지출의 강력한 통제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원동력 강화
  - R&D 투자 및 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기반 강화
    - 이러한 개혁안을 지지하기 위해 세제개편 및 지원을 통해 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는 수요중심 정책 실시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2008년 프랑스 경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꾸준한 성장세 기록 전망

○ 프랑스 경제는 2008년에는 평균 2.25%로, 2~2.5%의 성장률을 예상

- 내수경기의 호조와 사르코지 정부의 구조적 개혁이 이러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OECD는 2008년 GDP 증가율은 2% 이하로 평가하고 있으나, 프랑스 정부는 이를 너무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보고 있음

<표 IV-1>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2006	2007	2008
GDP Total (단위:10억 €)	1792	1861	1937
실질성장률	2.0	2.0~2.5	2.0~2.5
명목성장률	4.3	3.8	4.1
구매력 변화율	2.3	2.8	2.5
가계지출 증가율	2.1	2.0	2.5
기업투자 증가율	4.1	4.5	4.8
수출증가율	5.5	3.6	5.7
수입증가율	6.8	4.4	5.5
소비자물가증가율			
담배제외 (연평균)	1.7	1.3	1.6
담배포함 (연평균)	1.6	1.3	1.6
무역수지 (단위:10억 €)	-26.8	-31.7	-34.6
재정수지 (GDP 대비비율)	-2.5	-2.4	-2.3

자료: Les chiffres clés 1 page

- 2006년 이래로 고용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약 29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2007년: 약 250,000개)

※ OECD는 프랑스의 실업률은 2007년 8%로 감소한 데 이어 2008년 7.5% 및 2009년 7.4%로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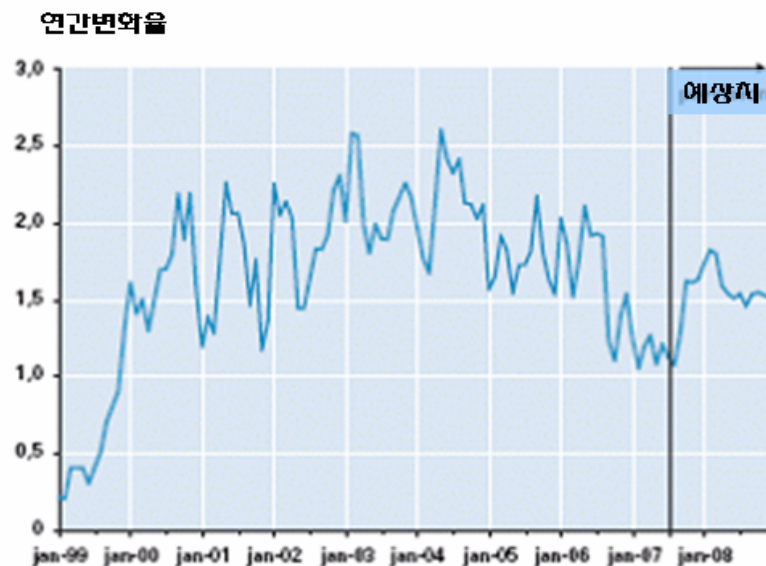
<표 IV-2> 프랑스 고용동향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연간증가율 (%)			연간증가인원(천명)		
임금노동자	1.2	1.1	1.2	263	245	285
무임금노동자	0.9	0.2	0.2	21	5	5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31 page

○ 2008년에는 물가상승률은 2007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여 평균 1.6% 예상

[그림 IV-1] 물가상승률,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34 page

## 1) 가계 부문

- 2008년 가계소비 및 투자는 2007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구매력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는 2.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이는 2007년 8월 21일 발표된 직업, 고용과 구매력에 관한 법률(Loi du 21 Aout 2007 pour le travail, l'emploi et le pouvoir d'achat)의 영향과 민간 영역에서의 직업창출 효과에 기인한 것임
  - 2008년 가계의 주택투자는 증가할 전망
    - 이는 2007년 8월 21일 발표된 직업, 고용과 구매력에 관한 법률의 직업, 고용과 구매력에 관한 법률의 주택 대출이자 20%의 소득공제 조항에 의거

## 2) 기업 부문

- 프랑스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건전한 기업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프랑스 기업은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 기업투자는 2007년 4.5%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도 평균 4.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비금융기업의 영업이익비율이 30.1%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지급불능정도를 고려할 때, 현 기업의 부채비율 수준에서는 기업에 의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

### 3) 국가 부문

- 2008년 경상수지적자는 2007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상품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적자 확대예상
    - 상품수지 적자 확대는 수입증가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
  - 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예상
    - 관광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IV-3> 프랑스 경상수지 추이**

(단위: 10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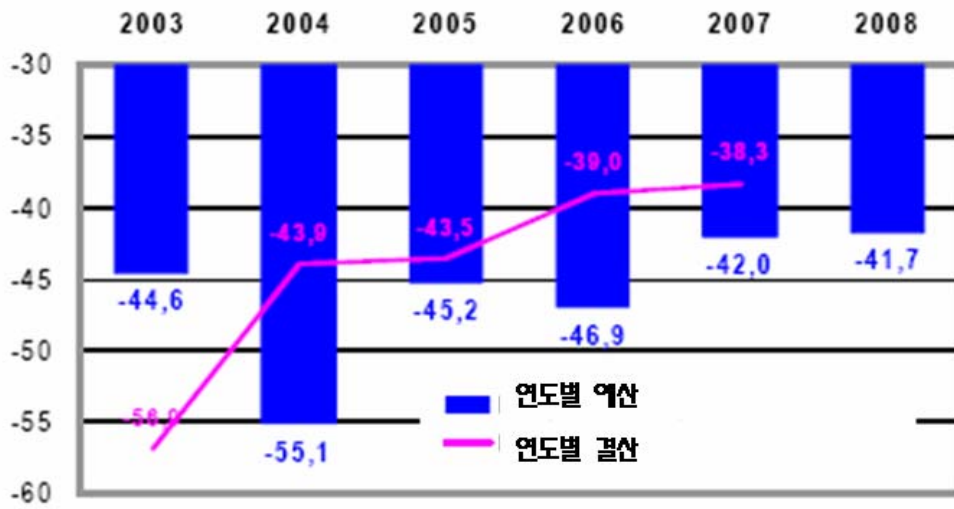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무역수지	-12.3	-21.8	-24.3	-24.6
상품수지	-23.0	-30.0	-33.5	-36.5
서비스수지	10.6	8.3	9.1	11.9
소득수지	18.7	21.0	22.1	20.2
경상이전수지	-22.1	-21.7	-21.5	-24.4
경상수지	-15.7	-22.5	-23.8	-28.8
경상수지 (GDP 대비)	-0.7%	-1.3%	-1.3%	-1.5%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38 page

#### 나. 재정상황과 전망

- 정부부채 감소와 정부지출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
  - 2008년에 재정적자는 417억 유로로 GDP 대비 2.3%, 이는 2007년에 비해 약 3억 유로 감소한 수치임
    - 일반회계의 재정적자는 2007년에 비해 약 10억 유로 정도 감소 예상

[그림 IV-2] 재정수지 추이



자료: PRÉSENTATION GÉNÉRALE 1 Page

- 특별회계의 재정적자는 5억 유로로 200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는 정부차입금 약 10억 유로를 상환할 계획에 기인
- 내수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정부 지출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부채를 0.5% 정도(GDP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IV-4> 2008년 프랑스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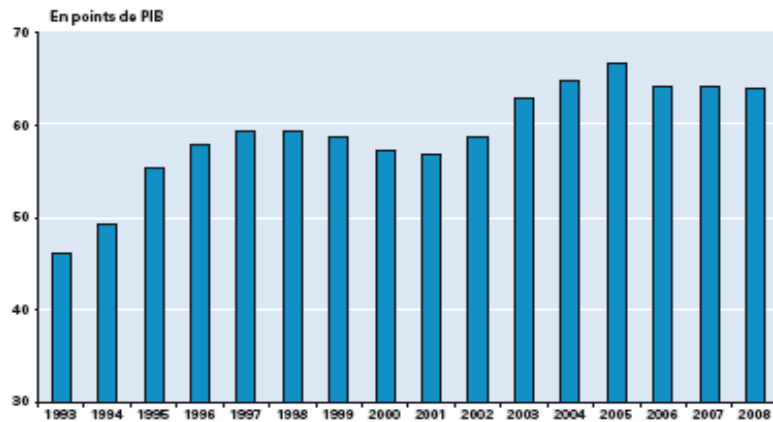
단위: 100만 €	2007년	2008년
<b>A: Debt</b>	39484	41084
Net lending	39191	40796
<b>B: Expenditure of personnel</b>	118587	119914
Remunerations of activity	74237	73474
Social contributions	43067	45104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various allowances	1282	1336
<b>C: Other expenditure</b>	108780	110813
Expenditure of Public institution	919	939
General Administration	33192	35280
Expenditure of investment	13157	13280
Expenditure of intervention	61228	60898
Expenditure of financial transactions	284	416
<b>Total expenditure of General Budget (A+B+C)</b>	266850	271810
<b>Total revenues</b>	292689	300133
Levies on revenues	-68417	-69578
<b>Net revenues</b>	224542	230555
<b>Balance of general budget</b>	-42308	-41255
Balance of supplementary budget	3	1
Balance of special budget	309	-467
<b>Balance of Budget</b>	-41996	-41721

자료: Les chiffres clés 7 page

### 1) 정부부채 (La Dette des administration Publique)

- 2007년은 부채의 유지 및 안정화가 목표였던 반면, 2008년부터는 부채감소를 본격적으로 추진
- 정부의 재정적자 감소정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2007년에 비해 GDP 대비 64%로 (2007년에 비해 0.2% 감소) 예상

[그림 IV-3] 정부부채(GDP 대비 비율)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59 Page

## 2) 정부수입 (Les Recettes)

□ 재정수입은 2007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프랑스는 국민부담률 중 사회보장에 대한 비중이 높아 다른 EU 국가에 비해 조세수입은 적은 편임
  -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44%에서 43.7%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역시 2007년 8월 21일 발표된 직업, 고용과 구매력에 관한 법률에 기인한 것으로 2007년 이래로 약 80억 유로 감소
- 2008년 순재정수입은 2007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여 총 2721억 유로로 예상
  - 조세수입 중 70% 이상의 원천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며 특히 부가가치세는 조세수입의 50% 이상을 차지
  - 공제 및 감세 금액은 832억 유로로 예상되며 2007년 결산 대비 4.7% 상승
- 세외수입은 2007년 대비 4.5% 증가 (약 6억 유로 증가)
- 지방세입 및 EU 이전세입 (Levies on the revenues of State)
  - EU와 지방정부관련 부담금 (Prélèvement sur les recettes de L'Etat)은 2007년 대비 5.1% 증가

<표 IV-5> 재정수입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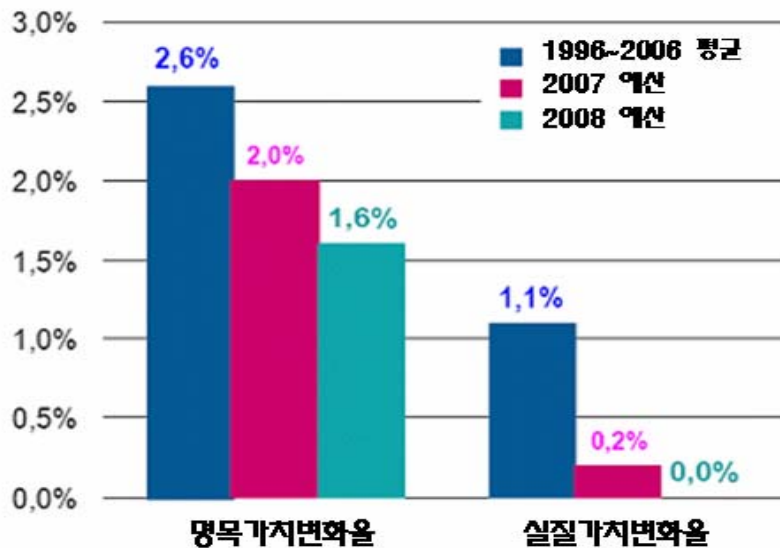
(단위: 백만 €)	2006년 결산	2007년 결산	2008년 예산	2008증가율 (2007년대비)
Total tax revenues	340,132	347,421	355,244	2.3%
Refunding and reductions	72,239	79,493	83,162	4.6%
Net fiscal Revenues	267,893	267,928	272,082	1.6%
Non-tax revenues	24,779	26,737	28,051	4.9%
Levies on the revenues of State	(-)65,831	(-)66,206	(-)69,578	5.1%
<b>Total Revenues of General Budget</b>	<b>226,841</b>	<b>228,459</b>	<b>230,555</b>	<b>0.9%</b>

자료: Les chiffres clés 4 page를 참조해서 작성

### 3) 정부지출 (Dépense Publique)

- 2008년은 과거 지출구조와 전혀 다르게 운영될 것이며, 이는 새롭게 실행된 정책과 새 정부의 구조개혁으로 인한 결과임

[그림 IV-4] 정부지출추이 (통합재정수지)



자료: PRÉSENTATION GÉNÉRALE 1 page

- 2008년에는 공공지출이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실질가치로 그 증가율이 0%로 제한할 예정
  - 이는 과거 정부총지출이 실질가치로 1996~2006년 평균 1.1%와 2007년 평균 0.2% 증가율을 한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임
  - 지출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Zéro volume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지출통제) 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율 이상의 지출 증가를 엄격하게 관리

## 2. 예산기조 및 분야별 예산

### 가. 예산기조

- 2008년 예산안은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안인 2007년 8월 일자리, 고용 및 구매력 증진을 위한 법률(La loi en faveur du travail, de l'emploi et du pouvoir d'achat du 21 août)의 실현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① 정부지출통제 강화

- 공공투자 목적의 경우에만 정부차입을 허용하는 재정준칙 도입
- 정부지출은 인플레이션율(1.6%) 이하로 통제되어 2008년 재정적자도 417억 유로로 안정화 추진
- 5백만 명의 공무원 중 전체 5%에 해당되는 인원 축소를 통해 4억 유로의 인건비예산 절감
- 2008년은 처음으로 정부지출 이외에 지방정부 및 EU에 대한 지출, 그리고 부처별 지출 현황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통제하는 원칙을 적용

#### ②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제고

- 2008년 예산안은 2007년 8월에 제정된 법안 일자리, 고용 및 구매력을 위한 법률(la loi du 21 août 2007 en faveur du travail, de l'emploi et du pouvoir d'achat)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됨
- 완전고용을 위한 재취업 관련 프로그램(accès et retour à l'emploi)과 고용을 통한 경제성장 프로그램(accompagnement des mutations économiques et développement de l'emploi) 추진

③ R&D 투자 및 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기반 강화

-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교육과 R&D 정책에는 18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배정하여 총 260억 유로 지출 예정 (예산의 약 8.6%)
- 기업 또는 재단의 대학 기부금 허용, 학생의 주소지 소재 대학선택권 부여, 대학 이사회 인원수 감소,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고액연봉 허용 등 예산지출 재량권을 대학에 부여
- 2008년 예산안에서는 조세개혁을 통해 R&D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업형 대학(jeunes entreprises universitaires)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도 포함
- 특허제출에 대한 면세, 특허인도에 따른 세금 감면 등 특허관련 세금감면을 통해 R&D 투자 확대 유도

**나 .분야별 예산 및 주요내용**

- 각 분야별 예산지출은 2007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게 책정
- 교육과 R&D 분야는 예외적으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
  - 미래성장기반구축에 대한 지출로 고등교육과 R&D 분야에 대해서는 2007년에 비해 18억 유로 증가된 260억 지출 예정

<표 IV-6> 분야별 예산

(단위: 100만 €)

	2007년	2008년
Exterior Action of State	2,264	2,263
General and territorial administration of State	2,498	26,587
Agriculture, fishing, drill and rural businesses	2,954	2,677
Government aid with the development	3,121	3,106
Ex-serviceman, memory and bonds with the Nation	3,750	3,766
The Council and control of State	468	497
Culture	2,694	2,771
Defense	36,285	36,760
Economic development and regulation	3,943	1,266
Direction of action of the Government	532	526
Durable ecology,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637	10,106
Financial commitments of State	40,863	42,439
Education	59,560	59,264
Management of the finance public and the human resources	8,921	11,265
Immigration, asylum and integration	6,721	610
Justice	504	6,519
Media	1,963	512
Overseas	613	1,730
Management of French economy	919	844
Policy of the territories	80	420
The authorities	21,314	939
Provisions	4,981	225
Higher education and R&D	3,070	23,279
Social systems and of retirement	431	5,124
Relationships to the local authorities	15,683	2,199
Health	429	430
Safety	661	15,911
Civil safety	12,204	418
Medical safety	780	713
Solidarity, insertion and equal opportunity	860	12,045
Sport, youth and community life	8,809	787
Work and employment	12,637	12,323
City and housing	7,158	7,176
<b>Total</b>	<b>267,847</b>	<b>271,810</b>

자료: Les chiffres clés 8 page를 참조해서 작성

- 사르코지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대대적인 공무원 인원 감축
  - 공무원 인력 감축으로 4억 58백 유로를 절감 예상
  - 인력감축을 통해 각 부처의 생산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
  - 퇴직자 2인당 1인 충원을 통해 공무원 인원을 2008년 중 약 22,900명 감축할 예정이며 이는 2007년 공무원 총인원의 1% 에 해당 (단 법과 R&D 분야 제외)

**<표 IV-7> 2008년 공무원 인원감축 계획**

	2007년 공무원 수	2008년 감축인원	감축비율 (%)
Official Publ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ve	1,032	-24	2.3
Budget, accounts public and public office	153,169	-2,625	1.7
Agriculture and fishing	39,253	-575	1.5
Health, youth and sports	7,292	-107	1.5
Defense	436,994	-6,037	1.4
Economy, finances and employment	16,402	-205	1.2
Ecology, development and Durable installation	96,627	-1,192	1.2
Interior, overseas and local authorities	192,744	-2,306	1.2
National education	1,044,990	-11,200	1.1
Air control and exploitation	11,297	-106	0.9
Culture and communication	12,137	-106	0.9
Work, social relations and solidarity	25,519	-183	0.7
Foreign Businesses and European	16,463	-118	0.7
Service of Prime Minister	2,604	-1	0.0
Higher education and R&D	147,636	0	0.0
The Council and control of State	4,911	49	1.0
Justice	72,023	1,615	2.2
Housing and city	3,099	100	3.2
Immigration, national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Co-development	0	100	-
<b>Total</b>	<b>2,283,150</b>	<b>-22,921</b>	<b>1.0</b>

자료: Rapport sur la dépense publique et son évolution page 54

- 지방정부의 지출은 2007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앙정부가 적절한 지출을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소위 '안정(Stabilité)'이라는 협정을 맺어 지방정부지출을 통제하고자 함
  - 다른 중앙정부의 지출과 동일하게 성장률이 아닌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지출 통제
  - 2008년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지역투자증가율이 2.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2007년은 4.6%이었음)
- EU 이전 지출은 2007년 대비 3억 유로 감소
  - 이는 2007년 EU 이전 지출이 2006년에 비해 16억 유로 증가된 것을 감안하면 큰 감소치는 아님
- 사회보장비용은 실질기준 전년도 대비 1.8%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안정된 모습
  - ODMAN (의료보험비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 명목기준 2008년 2.8% 증가율을 예상
  - 개인별자립수당제도(APA: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로 인한 지출증가통제 예정
    - \* APA는 60세 이상의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사 관련 서비스(집안일, 식사운반, 청소 등)를 제공해주는 사회수당의 일종
  - 2008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수당 지급(PCH)으로 인한 사회복지비용지출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퇴직으로 인해 연금 비용은 2007년에 비해 약 20억 유로 증가할 예정

### 3. 세제개편 및 지원

#### □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는 수요중심 정책 실시

##### ○ R&D 관련 세금감면 확대

- 특허세금 감면을 통해 특허제출에 대한 면세, 특허인도에 따른 감세 등을 통해 R&D 투자 유도
- R&D 투자에 대한 감세율을 1억 유로까지는 30%, 그 이상은 5%로 조정하고 16억 유로 한도를 폐지
- 중소기업, 대학 등에 투자하는 경우 부유세 납부액의 75%를 5만 유로 한도 내에서 감면

##### ○ 주택관련 과세 축소를 통해 가계의 구매력 증대

- 지난해 9월부터 주택소유촉진을 위해 5년간 매년 주택대출에 대한 이자의 20% 상당액을 소득에서 공제
- 가구의 연간소득에서 직접세(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사회보장세, 부유세 합)로 징수 최고한도를 종전 60%에서 50%로 인하
- 주택 대출이자의 20% 정도를 소득에서 공제
- 상속세 면세 가구대상을 현재 75%에서 95%로 확대
- 부동산 양도대상이 배우자인 경우 비과세이며 직계자손인 경우 기초공제액을 5만 유로에서 15만 유로로 확대

##### ○ 완전고용 추구

-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통해 완전고용을 추진함
-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경감 및 면세 (2008년 약 51억 유로 예상)
-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을 줄이고 간접세인 부가세를 5% 인상하는 방안 검토
- 고용을 위한 보조금 (Prime pour l'Emploi)의 한도를 1.3% 인상하여 2억 6천유로 배정